

화합 단결 봉사하는 치과인 다짐

「齒協 新年교례회」



▶
신년교례회
장면

지난 5일 조선호텔에서 치과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癸酉年 새해 치과계 신년 교례회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치협 주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尹興烈 齒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 단결하는 치과인, 국제화시대에 맞는 치과인, 모든 일에 앞장서는 치과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李浩正의원, 李永玉, 金東順, 池憲澤, 金仁哲고문, 李鐘守 명예회장 등 관계단체장들이 참가했다.

93년 醫療管理 대폭 強化

「의료 관리 업무지침」

보사부는 지난 12월 각 의료단체에 통보한 「93년도 의료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오던 의료감시 업무와 의료기관 자율지도외에 보수교육과 의료용구, 적출물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보수교육과 관련, 「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등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유도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경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월이상 자격정지」이며 「각중앙회및단체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이수자, 면제자들의 명단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사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적출물장부는 연도별 적출물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적출물등을 자체 소각처리할 때에는 소각일시, 적출물명 소각량, 소각책임자등이 기재된 소각대장을 비치할 것을 시달하는 한편 의료용구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 치과용핸드피스등 사전검사품목은 검사필증을 필히 부착하고 부착되지 않은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開院醫 2천여명 增加

「92년말 현재 6천 4백 31명」

지난 3년간 개원의 수는 2천여명이 늘어났으며 기원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부는 경기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집계한 각 지부별회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9년말 현재

개원의 수는 4천4백24명에서 92년말 현재 6천4백31명으로 2천7명이 증가, 연평균 6백6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90년 5천2백10명으로 7백86명이, 91년에 5천9백40명으로 7백30명이 증가했으나 92년에는 91년 국가시험 합격률저하로 인해 6천4백31명으로 4백91명만이 늘어났다.

경기지부는 3백85명에서 7백42명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서울에서의 개원난 등이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계 . 재 . 문 . 의 —

원고 및 광고 게재건은 지협회지대
행기관 도서출판 현대의학사로부터
마시기 바랍니다.

Tel : 277-8867 · 266-8398

장애인 진료센터관련 정관개정안 재상정 「재출마 관례 깨질수도 ……」

尹興烈 齒協회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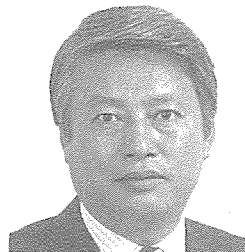
이날尹興烈회장은「4월 17일 총회 이전까지는 변함없이 주어진 회무를 수행할 것이며 다만 지금은 마무리 수습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덴탈셀 제작사업 및 부결된 정관개정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장애

인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덴탈셀 제작등은 작년 경주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부결된 정관개정안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출마에 관한 질문에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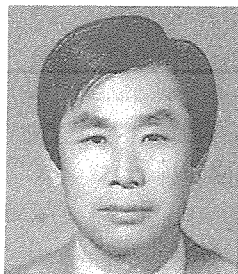
회의 사업이 지속되길 원하는 한사람으로서 노력하겠지만 현 회장이 차기회장에 재출마 해왔던 관례는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흥렬
치협회장

會員權益에 관한 사업 적극개발 「齒材協 연두기자 회견」

대한치재협회 金德俊회장은 지난 20일 치재협회 사무국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金德俊회장은 「회원의 권익신장」 「치과기자재 유통질서 확립」 「수입신고제도 및 약사법에 관한 정책사업」 등 새해 역점사업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총화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지금까지 대한



김덕준
치재협회장

치과협회 및 유관단체의 학술대회시, 치과기자재 전시를 주관해왔으나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각 단체와 협의하여 장소 선정 및 진행사항 등을 본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회원으로 하여금 야기 될 수 있는 무분별한 상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량치과자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차원의 대책도 마련중이며 현행 치과기자재 수입신고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사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39명 배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김수남)는 1992. 2. 28 이전에 구강외과 전공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제4회 인정의자격시험을 지난 1월 9일(1차시험), 1월 16일(2차, 구술시험)을 시행하고 39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구강외과 전공의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경험과, 2편 이상의 연구업적(평점 4.0이

상), 30시간이상의 추가보수교육을 받은 3년 이상의 학회회원으로서 응시한 46명 중에서 39명이 합격함으로써 1993년 1월 현재 전국 수련기관의 구강외과 전임교원 등 122명의 기존 “인정의”와 함께 악안면성형재건외과 분야를 전문하는 “인정의” 161명이 배출되었다.

제4회 인정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박용근 김희중 주재동 정상철
김민형 이봉재 김경원 황경곤
박상준 황효연 김종원 이찬일
박영욱 배양일 상재우 김선용
김태득 안재희 최병하 김영준
이원필 정 용 박주영 권귀영
이진하 김철진 김영재 안희용
김장응 김봉환 이재훈 전주홍
김사업 이진환 양수남 이상휘
박정근 김중철 김도균

금년도 齒醫국시 합격율 87% 비출신 대기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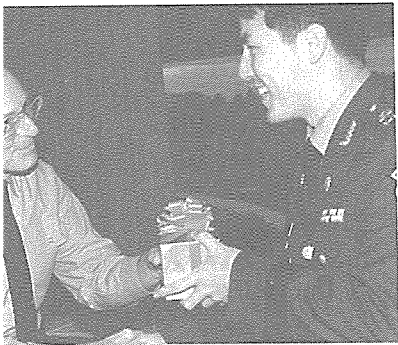
제 45회 국가시험(1월 19일 한양 공고 실시, 국립 보건원주관)이 지나 29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발표한 합격자 사정에 따르면 총응시자 1천 9명(해외출신 1백 3명)중 8백 82명이 합격해 87.41%의 합격율을 나타냈다. 이중 불합격자는 국내 38명, 해외출신 89명으로 총 1백 27명으로 발표되었는데, 해외출

신 1백 3명(필리핀 1백 1명, 미국 2명)가운데 14명만 합격(필리핀 12명, 미국 2명)하고 89명이 불합격해 14%의 저조한 합격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필리핀 출신 응시자가 대기 탈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작년의 경우 외국출신자는 79명이 응시해 필리핀출신 17명등 모두 22명이 합격했다.

제 99차 AMSUS개최 송세진 소령 참가



제 99차 AMSUS Annual Meeting 이 「The Future of Federal Health」란 주제로 지난 92년 11월부터 20일까지 미국 Nashville의 Opryland Hotel에서 28개국 대표단과 회원 5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열린 AMSUS Annual Meeting에는 대한민국 대표로 국군수도병원 교정과장 송세진 소령이 한미 의부병과간의 협력을 위해 국방부의무관리관 홍태의 준장을 수행하여 참가하였는데 AMSUS란 Association of Military Surgeons of the United States의 약어로서 미군진 의사협회를 말한다.

AMSUS Annual Meeting에는 군의전의무병과가 참여하며 현역과 예비역 군인, 군인과 민간의 연방공무원이 모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치과기재학회 정총 및 학술집담회 개최 「신임회장에 이한무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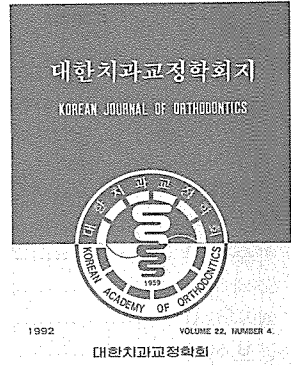
대한치과기재학회는 93년도 정기총회 및 73회 학술집담회를 지난 1월 27일 롯데호텔 버클리룸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 재무보고 및 93예산심의, 임원개선

및 93년 1월 27일로 임기가 끝나는 취옥환회장에 이어 신임회장으로 이한무회장을 선출했다. 또 제73회 학술집담회에서는 김교한교수와 김형일교수의 연자를 비롯하여 박사논문 6편과 석사논문 5편등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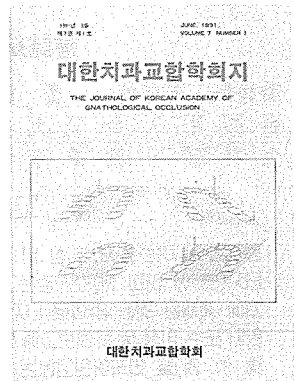
신간안내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제 22권 4호 발간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이기수)는 교정학회지 제 22권 4호를 발간했다. 동 학회지는 년 3회에서 4회로 증간되어 처음나온 회지로 총 156면에 걸쳐 「교정환자의 관리, 진단, 성장과 치료결과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대한치과교합학회지 제 7권 1, 2호 발간



대한치과교합학회(회장 윤창근)는 교합학회지 제 7권 1, 2호를 동시발간 했다. 1, 2권 합하여 총 302면에 걸쳐 「보철 수복환자의 저작기능 운동에 관한 전자모기법적 연구」를 비롯하여 총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있다.